

중국 文言小說에 나타난 異界 존재의 인간화 연구*

— 『太平廣記』를 중심으로

연소영**

목 차

1. 들어가며
2. 이계와 이계 존재들
3. 이계존재의 인간화
 - 1) 실체론적 인간화
 - 2) 사회문화적 인간화
 - 3) 휴머니즘적 인간화
 - 4) 세속적인 인간화
4. 인간화의 특징
 - 1) 이계의 인간세화 및 현세화
 - 2) 이계 존재와 인간의 관계 변화
5.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 문언소설에 나타난 이계(異界) 존재를 송초(宋初)까지의 작품이 수록된 『태평광기』 고사들을 통해 ‘인간화’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계란 이 세계[此界]와는 다른 세계로서 명계(冥界), 즉 타계(他界)를 포함하며, 후대로 갈수록 복잡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불교와 도교의 전통적인 저승관과 중국 도교적인 측면의 세계 또한 모두 포괄하여 고찰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1827)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

이계 존재들을 『태평광기』 대류인 신(神), 귀(鬼), 야차(夜叉), 요괴(妖怪), 정괴(精怪)를 대상으로 그 인간화의 양상을 고찰하면서, 특히 이계 존재가 실체론적, 사회문화적, 휴머니즘적, 세속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인간화된 모습이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계 존재는 이계 자체의 인간세화 및 현세화, 그리고 이계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인간들과의 관계 변화를 거치면서 인간화된 특징을 보인다.

키워드: 중국, 문언소설, 異界, 冥界, 鬼, 神, 저승사자, 夜叉, 妖怪, 精怪, 인간화

1. 들어가며

중국에서 신이한 이야기를 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진한(秦漢) 이래로 신선류의 이야기가 성행했고, 한말(漢末)에 일어난 무풍(巫風)으로 인해 귀신에 대한 신앙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때 불교(佛敎)가 중국에 들어와 점차 유행하고 전파되었다. 이 상황들로 인하여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신령스럽고 괴이한 것들이 말하여졌기에, 진(晉)에서 수(隋)에 이르기까지 귀신지괴의 책이 특히 많았고¹⁾, 당대(唐代)에는 비록 전기(傳奇)가 유행했지만 지괴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졌다. 이러한 작품집에 수록된 수많은 괴이한 이야기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야차(夜叉), 요괴(妖怪), 정괴(精怪), 귀(鬼), 신(神)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런 이계(異界) 존재들은 고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며, 현재까지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텍스트나 미디어 콘텐츠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과 같은 공간 혹은 다른 공간에서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거나 받기도 하는 이계 존재들의 인간화 현상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먼저 이계 존재 상호간의 비교·대조를 통해 개념을 확실시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것을 이계 존재로 볼 것인지 정하고 어떤 이계 존재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같은

1) 魯迅 저, 조관희 역주, 『中國小說史略』, 서울: 살림출판사, 1998, 96쪽 참조.

텍스트 안의 여러 이계 존재의 하위분류를 진행하겠다.²⁾

본 연구는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나타난 고사를 대상으로 한다. 『태평광기』는 북송(北宋) 초인 태평흥국(太平興國) 3년(978)에 편찬된 유서(類書)로, 한 대(漢代)부터 북송(北宋) 초까지의 고사(故事)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어 소설고사(小說故事)의 보고(寶庫)라 불린다. 『태평광기』는 전 500권으로 되어있으며 총 6965편의 고사가 내용에 따라 92개 대류(大類)로 크게 분류·수록되어 있다. 관련 고사들을 살펴볼 때, 지괴 작품집들을 광범위하게 수록

- 2) 중국의 지괴고사에 대한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계 존재의 인간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미비하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기존연구는 각각의 부문별, 주제별 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주요 논문을 살펴보면, 일찍이 서경호가 저승사자에 관해 고찰하면서 문인화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논문 「고대 중국에서의 소설적 서사의 형성과정-저승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동양학』 제28집, 1998)와 「소설적 서사의 형성과정에 관한 검토 - 귀신과 저승을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제15집, 1998)에서 고찰하여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박소현과 김광일은 각각 「魏晉南北朝 志怪의 敘事 特性에 관한 研究」(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위진남북조 지괴의 상상력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를 통해 위진남북조 지괴를 연구했지만, 당시의 상상력과 허구, 그리고 서사특성을 연구하여 개별 이계 존재에 대한 내용은 미미하다. 그 후 崔福女の 「魏晉南北朝 志怪의 鬼모티프 분석」(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00), 박지현의 「전통시대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 : 『太平廣記』 鬼部に 나타나는 신앙의 서사와 탈신앙」(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유강하의 「『太平廣記』 精怪類 분석」(중국어문학논집, 2004), 박지현, 「중국 민간 신앙 속에서의 신 되기 - 『태평광기(太平廣記)』 신부(神部) 이야기에 나타나는 인물신 분석」(중국학보, 2005); 연소영의 「『太平廣記』 佛教類故事研究 : 佛教素材의 受容과 變容을 중심으로」(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4), 이화주의 「삶과 죽음의 경계 : 『太平廣記』 「再生」類 故事 研究」(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6), 송진영, 「중국 고전소설 속에 묘사된 저승사자 명칭과 형상에 관한 고찰 - 『태평광기(太平廣記)』 · 鬼部(鬼部)를 중심으로」(中國語文學誌, Vol.56, 2016) 등의 논문이 나왔으나, 송진영은 그의 논문에서 저승사자의 인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많은 참고가 된다. 그러나 다른 내용들을 주로 대류별(부문별), 주제별 연구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연구 또한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房奕, 「從『太平廣記』看唐人夜叉觀」(中國典籍與文化 61, 2007), 吳悅馨, 「『太平廣記』 鬼類故事研究」(成功大學歷史學系碩博士班, 2010) 등이 있다. 또한 鬼나 저승사자 등의 인간화 문제에 대한 연구도 많은 특징 중에 거론된 한 가지 양상으로 분석되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인간화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이루어진 연구가 없는 것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이계 존재에 대해 종합적이 고찰을 위해서는 통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고 있으며, 그 고사 수 또한 매우 풍부하다.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와 당대의 관련 고사들을 고루 포함하고 있는데, 귀(鬼), 요괴(妖怪) 등 각각의 대류 안에서는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대류별 통시적으로 고찰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관련 고사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신선(神仙)이나 불교(佛敎) 등 다른 내용의 고사(故事)들도 포함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고찰이 가능하기에 연구대상으로 삼기 매우 적합하다. 본 연구는 권291~권315 신(神)<권315 음사부(蔭祠附)>, 권316~권355 귀(鬼), 권356~권357 야차(夜叉), 권358 신흔(神魂), 권359~권367 요괴(妖怪)<권367 인요부(人妖附)>, 권368~권373 정괴(精怪), 권374 영이(靈異)를 대상으로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화의 현상이 귀, 혹은 저승사자 등 특정 존재나 일부 영역에서만 나타나 것이 아니라, 비록 양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태평광기』에 나타난 이계 존재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중국 문연소설에 나타난 이계 존재들은 고사 안에서 여러 양상을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과 이계 존재에 대한 실체적, 사회문화적, 휴머니즘적 접근을 통해 그 인간화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와 당대(唐代) 시기의 특징에 주목하여,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찰을 통해 이계 존재의 인간화 특징을 차별성 있게 연구하고 이를 통해 이계 존재의 인간화 현상의 특징 및 의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2. 이계와 이계 존재들

1) 이계(異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계는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인 이 세계 [此界]와는 다른 세계로서, 명계(冥界), 즉 타계(他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국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鬼)가 된다는 생각이 고대로부터 있었고, 한대

(漢代)에 혼(魂)과 백(魄)으로 분리해 사유했다. 명계(冥界)에 대한 기원은 『초사(楚辭)』 「초혼(招魂)」의 유도(幽都)에서 지옥과 연관된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동한(東漢) 말 불교가 유입되면서 염라(閻羅)나 지옥(地獄)의 등장과 함께 명계에 관한 개념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사람이 죽어서 된 귀(鬼)나 신(神), 저승사자는 명계에, 요괴, 정괴 등은 이계에 살고 있다고 여기며, 이계는 ‘인간의 일상생활의 주변에 퍼지는 일상 공간’을 가리키는 공간적 개념이고, 명계는 인간의 탄생 전과 사후의 시간을 보내는 곳과 지옥을 포함한 공간적·시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귀가 차계와 이계를 넘나들 듯 상호 이동은 용이하며, 두 세계의 경계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³⁾ 또한 이계와 저승은 후대로 갈수록 복잡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이를 모두 포괄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전통적인 저승관에 포함된 황천·태산·『초사(楚辭)』의 유도(幽都)와, 중국 도교적인 측면의 신계·명계·명부, 그리고 불교적인 측면의 육도(六道) 중 인도(人道)와 축생도(畜生道)를 제외한 천도(天道)·아수라도(阿修羅道)·아귀도(餓鬼道)·지옥도(地獄道)를 포괄한다. 엄밀히 말하면 요괴, 정괴, 귀는 아귀도, 저승사자는 지옥도에 속한다. 그러나 『태평광기』에서는 저승사자를 귀류(鬼類)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이계의 존재

논의의 진행을 위해 『태평광기』에 수록된 내용과 기존연구를 토대로 각각의 이계 존재와 『태평광기』 대류(大類)별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神)은 고대 중국에서 자연신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인물

3) 사에키 다카히로, 「일본의 유령·요괴」, 『귀신·요괴·이물의 비교문화론』, 서울: 소명출판, 24쪽 참고.

신의 개념이 대두되었다.⁴⁾ 『태평광기』 신류(神類)에서는 신(神)에 관한 고사들이 모여 있는데, 자연신에 관한 고사는 3조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인물신에 관한 고사이다.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이 된 인물신의 영험함과 신과 인간과의 관계 등을 살필 수 있다.

귀(鬼)는 고대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귀가 된다고 보았으며, 『태평광기』 귀류(鬼類)에서는 400조가 넘는 방대한 고사를 수록하고 있어 다양한 귀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야차(夜叉)는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로, 인도 신화 및 불교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태평광기』 야차류에서는 야차가 여러 가지 흉포한 모습으로 사람을 잡아먹거나 해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인간화의 모습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요괴(妖怪)는 자연물이 오래되어 사람이거나 현상계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존재이다. 요괴는 사람이거나 동물, 바람이나 소리 같은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태평광기』 요괴류에서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괴(精怪)는 자연물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사물이 오래되어 사람이거나 현상계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존재이다. 귀 중에서도 지위가 낮은 사귀(邪鬼)에 해당한다.⁵⁾ 정괴는 사물을 기원으로 하고, 요괴는 자연물을 기원으로 하는 점이 다르다.

신혼(神魂)은 혼(魂)에 대한 내용으로, 『태평광기』 신혼류에서는 이혼(離魂)에 관한 고사들이 주를 이룬다. 사람의 혼만이 육신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는 연애담도 수록되어 있다. 이는 사람의 혼만이 몸과 분리되는 것으로 이계 존재에 해당되지 않지만 혼은 이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박지현,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 : 『太平廣記』 鬼部に 나타나는 신앙의 서사와 탈신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3-62쪽 참고.

5) 『태평광기』 내용을 통해 정괴의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유강하, 「『太平廣記』 「精怪」 類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2004, 530쪽 참고.

영이(靈異)는 신령스런 일을 기록한 것으로, 『태평광기』 영이류에는 흉사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지 신이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돌 거북이, 대들보가 용이 되는 등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인간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중 가장 방대한 분량을 가지는 귀류(鬼類) 고사들은 하위 분류 및 그 유형에 있어서도 기존연구에서 다양한 견해를 보인다. 주요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귀에 대한 분류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이홍자는 저승사자, 선악행위로 대비된 귀(악귀/선귀), 인과관계로 적용한 귀(우귀/원귀), 자연물이 변한 귀(정괴, 요괴)⁶⁾로 분류했고, 최복녀는 신지귀매(神祇鬼魅)(신지, 이매, 역귀와 요물, 소속불명의 귀), 인귀(가족이나 조상, 친구나 면식 있는 자들, 생전 관계없던 자들, 원귀), 저승사자로 분류했으며, 박지현은 무연고귀신 이야기, 조상귀신 이야기, 명혼담(결혼하는 귀신이야기), 입명담(저승체험이야기), 저승사자 이야기⁷⁾로 각각 귀 및 귀신고사를 분류했다.

본고에서는 『태평광기』 대류 및 기존연구의 분류를 참고하여 인간화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분류를 시도했다. 이계 존재를 구별하고 하위분류 및 그에 속한 존재들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신(神)-자연신(自然神), 인물신(人物神)

귀(鬼)-연고귀(緣故鬼)·무연고귀(無緣故鬼), 저승사자

야차(夜叉)

요괴(妖怪)-괴(怪), 망량(魍魎), 매(魅), 살(煞), 사(俟), 상(常), 산소(山魃) 등

정괴(精怪)

영이(靈異)

6) 이홍자, 육조지괴를 통해 본 귀의 유형-고소설구침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1981, 박지현, 앞의 논문(2004), 62쪽; 최복녀, 앞의 논문, 48쪽, 재인용. 최복녀는 이홍자 이외에도 엽경병(葉慶炳), 키야마히데오(木山英雄), 서경호의 분류를 수록해 놓아 참고했다.

7) 박지현 앞의 논문, 2004, 61-62쪽 참고.

3. 이계 존재의 인간화

이계 존재의 전체적인 인간화 양상을 조망하기 위해 먼저 항목당 인간화여부를 나타내는 표를 작성하였다(〈표1〉참고).

		인간화여부				
		형태론적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휴머니즘적	세속적
신	자연신	o	x	o/o	x	x
	인물신	o	o	o/o	o	o
귀	조상귀	o	o	o/o	o	o
	무연고귀	o	o	o/o	o	o
	저승사자	o	o	o/o	o	o
	야차	o	o	o/x	x	x
	요괴	o	o	o/o	x	o
	정괴	o	o	o/o	x	o

〈표1〉

1) 실체론적(형태론적, 생물학적) 인간화: 인간의 모습으로

『태평광기』에는 이계 존재들이 단순히 겉모습을 변화시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연구범위 고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인물신이나 조상귀의 경우 본래 인간이었다가 죽은 후 신이 되거나 귀가 되었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꿈에 나타나는 것을 넘어 현실에서, 그것도 대낮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꿈을 꾸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으로 나타내는 것, 혹은 본래의 모습을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능력’으로서 여겨지기도 한다.⁸⁾ 야차를 제외한 모든 이계 존재, 즉 자연신, 인물신,

8)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계 존재는 사람을 현혹시켜 위해를 가하거나 결혼, 유혹, 도움의 요청 등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위해 속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신, 무연

조상귀, 무연고귀, 저승사자, 요괴, 정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한 형태의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보다 진일보한 형태인 생물학적 변화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계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처럼 피를 흘리는 것도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귀는 혼백 중 백이 땅으로 내려가 되는 것, 정괴는 사물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한 것임을 상기할 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찬선(盧贊善)」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찬선의 집에는 자기로 만든 신부인형이 있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그의 아내가 농담으로 인형에게 말했다.
 “네가 내 남편의 첩이 되려무나.”…
 노찬선은 …인형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깨부숴버리게 했다.
 인형의 심장에는 피가 묻어있었고 그 크기는 계란만 했다.⁹⁾

위의 고사에서 자기로 만들어진 인형에 심장이 생기고 피가 흐르게 되면서 인간의 육신이 생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계란 만 한 심장이 생긴 것은 없던 장기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다 구체화된 생물학적 인간화의 면모를 보여준다. 「소비녀(蘇丕女)」¹⁰⁾고사에서는 총애를 받는 하녀가 염고법(魘蠱法)¹¹⁾을 이용해 비단으로 만든 비단인형을 만들어 부인과 딸을 저주하는 내

고귀(특히 약귀), 요괴의 경우 인간의 모습 이외에도, 더 공포스러운 모습이나 기이한 모습, 소리·바람 등의 무생물, 뱀·사슴·원숭이·이무기 등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최후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계 존재임을 드러내게 된다.

9) 『태평광기』 368·11 「노찬선(盧贊善)」: 盧贊善家, 有一瓷新婦子. 經數載, 其妻戲謂曰: “與君爲妾.” 盧因爾惘惘. 恒見一婦人, 臥于帳中. 積久, 意是瓷人爲祟, 送往寺中供養. 有童人, 曉于殿中掃地, 見一婦人. 問其由來, 云是盧贊善妾, 爲大婦所妒, 送來在此. 其后見盧家人至, 因言見妾事. 贊善窮核本末, 所見服色, 是瓷人. 遂命擊碎. 心頭有血, 大如雞子. (出『廣異記』), 368·11은 『태평광기』 권368의 제11조를 나타내며, 편의상 위와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 같음. 『태평광기』 고사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이방 외 찬, 김장환 외 옮김, 『太平廣記』, 서울: 학고방, 2003을 따르고, 가감한 것임을 밝힌다.

10) 『태평광기』 369·1 「소비녀(蘇丕女)」고사 참조.

용이 보인다. 염고술의 완성단계로 들어가면서 부인 인형이 돌아다녔는데, 사람의 이목구비의 형체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그것을 배자 피가 바닥에 흐를 정도였다. 인형을 태우자 사람을 태우는 냄새가 날 정도로 한 층 더 완성된 인간의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²⁾

단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넘어, 사람처럼 피를 흘리거나, 아이를 갖거나,¹³⁾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보다 생물학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다.

서경호, 송진영이 그들의 연구에서 저승사자의 인간화의 특성으로 지적한 바 있듯이¹⁴⁾, 귀는 특히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기도 한다. 배고픔에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먹거나 음식을 그냥 먹는 것과는 달리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목인천(睦仁菑)」고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당(唐)나라 때 목인천(睦仁菑)은 조군(趙郡)의 한단(邯鄲) 사람이다...
 “성장사(成長史: 成景)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대와 사귀기로 한 이상 그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도(鬼神道)에서도 식사를 하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 없어 항상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만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1년 동안은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은 자주 사람의 음식을 훔쳐서 먹는데, 나는 지위가 높아 훔쳐 먹을 수도 없으니, 그대를 따라가서 식사 한 끼만 했으면 합니다.’” 목인천은 그 사실을 잠문본(岑文本)에게 말했고, 잠문본은 성경을 위해 음식을 차려 왔는데, 온갖 산해진미가 다 있었다...¹⁵⁾

11) 염고법(鹽蠱法)은 주술로 저주하여 사람을 해치는 술법을 말한다.

12) 위에 인용한 고사 이외에 『태평광기』 372·6 「장불의(張不疑)」 등 참조.

13) 『태평광기』 316·4 「노충(盧充)」, 316·5 「담생(談生)」 고사 등 참조.

14)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175-182쪽; 송진영, 앞의 논문, 68쪽 참고.

15) 『태평광기』 297·4 「목인천(睦仁菑)」: 唐睦仁菑者, 趙郡邯鄲人也. … 仍謂曰: “成長史語我, ‘有一事差君不得道. 既與君交, 亦不能不告. 鬼神道亦有食, 然(食然二字原缺. 据『冥報記』補.)不能得飽, 常苦飢. 若得人食, 便得一年飽. 衆鬼多偷竊人食. 我既貴重, 不能偷之, 從君請一食.’” 仁菑既告文本, 文本既爲具饌, 備設珍羞. … (出『冥報錄』)

성장사(成長史)라고 불리는 무연고귀는 길에서 목인천을 만나 교분을 나누기를 청한다. 자신을 귀신이라 밝히면서 미래의 관록과 환난을 미리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다. 고사에서 귀신이 늘 허기짐을 느끼는 이유를 밝히고¹⁶⁾ 사람의 음식을 먹을 것을 청하고 있는데, 생리적, 생물학적인 요소인 배고픔을 느끼고 인간의 음식을 먹으려는 것도 인간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인간화: 지식의 추구하고 문화향유

『태평광기』에는 이계 존재들이 지식을 추구하거나,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은 위진남북조 보다 당대 고사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난다.

신이나 연고귀(조상귀 등)는 구복의 대상이며, 인간에게 영험함을 드러냄으로써 존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인간의 모습이 다분히 투영된 모습이며, 고사를 통해 나타난다. 이는 생전에 자신이 즐기던 문화생활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¹⁷⁾ 그러나 요괴나 정괴가 사람의 모습으로 노래하고 시를 읊는 것은 이계 존재의 인간화된 모습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광기』 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밤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정화가 여인을 앞으로 오게 해서 보았더니 그녀는 자태가 단정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인은 하녀를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녀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게 했다. …그녀는 곧장 하녀에게 비파(琵琶)를 가져오게 하여 비파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 새벽이 되자, 그 여인은 갑자기 사라졌다. 방산정(方山亭)의 관리가 말하길, 이 정자에서는 예로부터 요괴가 나타난다고 했다.¹⁸⁾

16) 성장사가 말한 귀신도는 불교의 육도(六道)중 아귀도(餓鬼道)를 말한다. 아귀도는 지옥의 바로 위에 있으며, 늘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곳이다.

17) 서경호는 이를 ‘문인화 현상’으로 보았다. 서경호, 앞의 책, 192-197쪽 참고.

18) 『태평광기』 360·18 「정화(丁譚)」: … 夜中, 忽有一婦, … 譚使前, 姿形端媚. 從婦數人, 命仆具肴饌. … 便令婦(“婦”原作“婢”, 据明抄本改.)取琵琶彈之. … 比曉, 忽不見. 吏云, 此亭舊有妖魅. (出『幽冥記』[『幽明錄』])

진사 양정은…석옹사(石瓮寺) 문수원(文殊院)을 오랫동안 빌려 기거했다. 양정이 그곳에서 열흘 남짓 지냈을 때, 붉은 치마를 입은 어떤 여자가 다 지난 저녁에 왔다. 그녀는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자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 그녀는 주렴 밖에서 천천히 거닐면서 노래를 불렀다. … [그의] 용모가 불탑 아래에 몰래 엮드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살펴보았더니, 과연 문틈에서 나와 서당으로 들어갔는데, 다름 아닌 밝게 빛나는 등불이었다. 그래서 꺼버렸더니, 그 후로는 마침내 붉은 치마 입은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¹⁹⁾

위의 두 고사는 요괴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비파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내용으로, 「정화(丁譚)」고사에서 자태가 아름다운 여인은 요매(妖魅)이다. 이는 도깨비 혹은 요괴로 풀이되는데, 하녀를 거느리고 음식을 차리며, 비파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뒤에 요매(妖魅)라 밝히지 않으면 사람으로 여길 만큼 보통 여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양정(楊禎)」고사에서 붉은 옷을 입은 화려한 여인이 시를 짓고 노래도 부르는데, 후에 밝게 빛나는 등불로 밝혀지지만, 충분히 사람으로 착각할 만 하다.

한편 이계 존재는 사람들과 지식을 다투거나 논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수재(麴秀才)」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사 섭법선(葉法善)은 부록술(符籙術)에 뛰어나서 황제가 여러 번 그에게 홍려경(鴻臚卿)을 제수하고 후한 예를 갖춰 대접했다. 섭법선이 현진관(玄眞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한 서생이 거만하게 노려보며 곧장 들어왔는데, 나이는 20세 쯤 되어 보였고 통통하고 하얀 피부가 보기 좋았다. …그는 고금(古今)의 전적을 인용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온 좌중은 생각지도 못했던 고견이라 모두 존경의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 섭법선은 몰래 단도로 그를 찌르고 손 가는데로 머리를 베었다. 국수재의 머리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더니 병뚜껑으로 변했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 당황하다가 국수재가 있었던 자리를 보았더니 바로 잘 익은 술이 가득 든 병이 있었다. 사람들이 크게

19) 『태평광기』 373·5 「양정(楊禎)」: 進士楊禎, … 長借石瓮寺文殊院, 居旬餘, 有紅裳既夕而至, 容色姝麗, 姿華動人. 徐步于帘外, 歌曰 … 母乃潛伏于佛榻, 俟明以觀之. 果自隙而出, 入西幢, 澄澄一燈矣. 因扑滅, 后遂絕紅裳者. (出『慕異記』)

웃으며 그 술을 마셨는데, 그 맛이 정말 좋았다. ...²⁰⁾

위의 고사에서는 술병이 사람들과 명리(明理)를 논하며 고금(古今)의 전적을 인용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연물이나 사물이 변화한 요괴나 정괴의 인간화된 모습은 지적이고 문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러한 행동을 통해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며 동화될 수 있을 만큼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과 경전에 대해 논하고²¹⁾ 글이나 시를 짓기도²²⁾ 하고, 노래하고 여러 가지 음악을 연주하거나²³⁾ 저포놀이²⁴⁾나 바둑을 두는²⁵⁾ 등 지식을 추구하고 문화와 오락을 향유하는 모습이 『태평광기』 고사 곳곳에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이계 존재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인간화의 면모를 알 수 있다.

3) 휴머니즘적 인간화: 감정, 인정을 가진 인간화

휴머니즘은 인간주의 · 인문주의(人文主義) · 인본주의라고도 하며 ‘인간다움’을 중시하는 넓은 범위의 사상적 · 정신적 태도 및 세계관을 말하는데, ‘인류애’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태평광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감정과

20) 『태평광기』 368 · 14 「국수재(麴秀才)」: 麴秀才道士葉法善, 精於符籙之術, 上累拜爲鴻臚卿, 優禮特厚. 法善居玄眞觀, … 有一措大, 傲視直入. 年二十許, 肥白可觀. … 抗聲譚論, 援引今古. 一坐不測, 衆聳觀之. … 法善密以小劍擊之, 隨手喪元, 墜於階下, 化爲瓶蓋. 一坐驚懼惶遽, 視其處所, 乃盈瓶醞醞也. 咸大笑, 飲之, 其味甚佳. …(出『開天傳信記』)부록술(符籙術)은 부록을 그려 귀신을 쫓는 술법이다.

21) 『태평광기』 305 · 1 「왕법지(王法智)」, 319 · 5 「완첨(阮瞻)」고사 등 참조.

22) 『태평광기』 308 · 2 「이서(李序)」, 310 · 1 「장무과(張無頗)」, 310 · 5 「하양조위(夏陽趙尉)」, 367 · 1 「동가원(東柯院)」, 370 · 3 「최각(崔穀)」, 372 · 5 「노함(盧涵)」, 372 · 6 「장불의(張不疑)」고사 등 참조. 귀류에서는 다수의 고사에서 보임. 330 · 8 「하미인(河湄人)」등 참조.

23) 위에 인용한 고사 이외에 『태평광기』 312 · 1 「초주인(楚州人)」, 316 · 12 「진아등(陳阿登)」고사 등 참조.

24) 『태평광기』 317 · 5 「왕번(王樊)」고사 참조.

25) 『태평광기』 312 · 3 「활능(滑能)」고사 참조.

인정을 가지거나 보은을 하는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주자지(朱子之)」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군(東陽郡)의 주자지의 집에 어떤 귀신이 늘 찾아왔다. 주자지의 아들이 심장병을 앓자, 귀신이 말했다. “내 당신을 위해 치료할 방법을 찾아보겠소이다.”… 주자지의 집에서 곧바로 창을 가져다가 귀신에게 주자, 귀신은 곧장 창을 들고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와서 뜰 한 가운데에 창을 놓았다. 또 호환을 땅에 던졌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따뜻했다.²⁶⁾

주자지와 교류하던 귀신은 비록 아픈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호환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해 호랑이를 잡아 호환을 가져다 치료해준 것이다. 이는 사람을 잡아먹거나 괴롭히는 여타의 귀고사와 비교한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귀는 휴머니즘적 인간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보은을 하는 이계 존재도 있는데, 「왕유(王鮪)」고사에서 그는 해골 두 구가 분뇨더미에 묻혀 있는 것을 보고, 하인들에게 깨끗한 땅을 골라 묻어주게 하고 아울러 술과 음식을 준비해 제사지내게 한다. 그러자 귀신이 나타나 보답으로 길흉이 있을 때 마다 알려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몇 년 후에는 왕유가 영물(靈物)과도 통하고 죽은 이도 살릴 수 있게 된다.²⁷⁾

특이하게도 『태평광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귀신도 나타난다. 「완덕여(阮德如)」고사를 살펴보자.

완덕여가 한번은 뒷간에서 귀신을 보았다. 귀신은 1장(丈)이 넘는 키에 시커먼 얼굴, 부리부리한 눈에 하얀 흘웃을 입고 평상책(平上幘)을 쓰고 있었는데, 바로 지척 앞에 있었다. 완덕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26) 『태평광기』 318·8 「주자지(朱子之)」: 朱子之, 有一鬼, 恆來其家. 子之兒病心痛, 鬼語之: “我爲汝尋方.” 云: “燒虎丸飲卽差. 汝覓大戟與我, 我爲汝取也.” 其家便持戟與鬼, 鬼持戟去, 須臾還. 放戟中庭, 擲虎丸著地, 猶尙暖. (出『齊諧記』)

27) 『태평광기』 352·6 「왕유(王鮪)」고사 참조.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들이 귀신은 징그럽게 생겼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귀신은 무안하여 얼굴을 붉히며 물러갔다.²⁸⁾

측간귀신은 그것을 보는 사람은 곧 죽는다는 대표적인 악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고사에서 징그럽게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안해 하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포의 모습이 아닌 인간처럼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계 존재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람이 죽지 않게 도와주거나 복수를 위해 도와주는²⁹⁾ 내용도 보이는데, 모두 인간의 감정이나 휴머니즘을 가진 인간화된 이계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4) 세속적인 인간화

신이 되었던 인간은 신령성을 잃고 세속적이거나 타락한 모습이 되기도 한다. 『태평광기』에서는 신 등의 이계 존재가 거짓말을 하거나,³⁰⁾ 청탁이나 비리를 저지르고,³¹⁾ 사욕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거나 목숨을 빼앗는 등의 내용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조주참군처(趙州參軍妻)」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주참군 노생(盧生)은 갓 결혼했을 때 부임했는데, 그의 아내는 매우 아름답다웠다. … 그녀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생기더니 한식경 뒤에 죽고 말았다. …“이것은 분명 태산삼랑(泰山三郎)짓이오.” …노생이 돌아가서 명승엄의 말대로 3장의 부적을 차례대로 태우자, 그의 아내가 결국 살아 나더니 잠시 후엔 말까지 할 수 있었다. “수레에 실려 태산 꼭대기에 도

28) 『태평광기』 318·20 「완덕여(阮德如): 阮德如, 嘗于廁見一鬼, 長丈餘, 色黑而眼大, 著白單衣, 平上幘, 去之咫尺. 德如心安氣定, 徐笑而謂之曰: “人言鬼可憎, 果然.” 鬼赧而退. (出『幽明錄』)

29) 『태평광기』 296·6 「이주조(爾朱兆), 318·16 「이경(李經)」고사 등 참조.

30) 『태평광기』 318·21 「진경손(陳慶孫)」고사 참조.

31) 『태평광기』 311·14 「진사취생(進士崔生)」고사 참조.

착하자 궁궐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삼랑’이라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10여명의 시녀들에게 명하여 저를 별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몸단장을 시중들게 하였습니다. …시녀들이 저에게 몸단장을 재촉했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슬피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 ‘나는 상리공조(上利功曹)인데, 도사(都使)의 분부를 받들고 왔소. 어찌하여 노생의 부인을 잡아갔는지 삼랑에게 물으라 하셨습니다. 마땅히 즉시 그녀를 돌려보내야 하오.’ 그러자 삼랑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오건 말건 도사가 무슨 간섭이요!’…³²⁾

위의 고사에서 태산부군의 셋째 아들인 삼랑(三郎)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납치해 온 것도 모자라,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에 일을 바로잡으려 사자로 온 상리공조를 꾸짖어 돌려보낸다. 이후 고사에서는 태을직부(太乙直符), 즉 신의 세계를 관장하는 태을신³³⁾이 삼랑을 징벌하여 노생의 아내는 가까스로 돌아오게 된다. 본래 태산부군은 저승을 관장하는 신인데, 그의 아들이 이런 무뢰배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신이 더 이상 신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가복(仇嘉福)」고사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며³⁴⁾, 심지어 어떤 신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일부러 빼앗기도 한다.³⁵⁾ 귀(鬼)도 사육을 위해 인간에게 자신을 신이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재물을 요구하는 내용, 혹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아 저승에 청탁하는 내용이 보인다.³⁶⁾ 이러

32) 『태평광기』 298·6 「조주참군처(趙州參軍妻)」: 趙州盧參軍, 新婚之任, 其妻甚美. …忽暴心痛, 食頃而卒. …“此泰山三郎所爲.” …盧還如言, 累燒三符, 其妻遂活, 頃之能言. 初云: 被車載至泰山頂, 別有宮室, 見一年少, 云是三郎. 令侍婢十余人擁入別室, 侍妝梳. …婢等令速妝, 已緣眷戀故人, 尚且悲淚. …“是上利功曹, 適奉都使處分, 令問三郎, 何以取戶家婦? 宜即遣還.” 三郎怒云: “自取他人之妻, 預都使何事!” (出『廣異記』)

33) 도교에서 북두성의 신인 태을신(太乙神)이 천제(天帝) 다음으로 가장 높은 신이었으나, 수당대(隋唐代) 이후 옥황상제(玉皇上帝)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34) 『태평광기』 301·4 「구가복(仇嘉福)」고사 참조.

35) 『태평광기』 302·2 「위정훈(衛庭訓)」고사 참조.

36) 『태평광기』 318·21 「진경손(陣慶孫)」, 334·10 「기주좌사(岐州佐史)」, 336·4 「우문적

한 이계 존재는 세속화 된 인간화의 모습이 극명히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아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4. 이계 존재의 인간화의 특징

1) 이계의 인간세화 및 현세화

이계 중 가장 두드러진 세계관은 신계와 명계로 표현되는 저승이다. 신계는 신들의 상하, 고하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며,³⁷⁾ 인물신의 신화(神化)로 인해 수도 많아지게 되었다. 명계는 위진, 남북조, 당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도교의 태산(泰山)이라는 귀를 다스리는 공간에 불교의 지옥이 복합적으로 융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계, 명계 모두 관료사회화³⁸⁾, 제도화, 계급화된 모습을 보인다. 신·귀의 관리의 임명, 선발, 승진, 강등, 좌천, 징벌³⁹⁾ 등이 보이며, 더 나아가 봉건제화 된 모습도 나타난다. 이는 인간의 현실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목인천(睦仁茜)」고사를 살펴보자.

도가에서 말하는 천제가 육도(六道)를 총괄하는데, 그곳이 바로 천조(天曹)입니다. 염라왕(閻羅王)은 인간 세상의 천자와 같고, 태산부군은 인간 세상의 상서(尙書)나 영록(令錄)과 같으며, 오도(五道)의 신은 인간세상

(宇文覲)고사 등 참조.

37) 梁나라 도홍경의 『진령위업도(眞靈位業圖)』이후 원시천존(元始天尊)을 중심으로 신들의 계보다 형성되었다. 갈조광지음, 심규호 옮김, 『도교와 중국문화』, 서울: 동문선, 93-96쪽 참고.

38) 저승사자에 대한 부각을 사후 세계 인식이 체계화·관료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박지현, 앞의 논문, 2004, 62쪽 참고.

39) 『태평광기』 312·7 「이주씨(爾朱氏)」, 312·12 「서환(徐煥)」, 314·13 「곽후(郭厚)」고사 등 참조.

의 상서(尙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것은 인간세상의 큰 주(州)나 군(郡) 같습니다. 천조에서 이 일을 받아들이면 염라왕이 다음과 같이 하달합니다. ‘아무 달 아무 날에 아무개의 하소연을 들었는데, 마땅히 이치에 맞게 처리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염라왕은 천조의 뜻을 삼가 받들어 시행하는데, 인간세상의 사람이 천자의 조서를 받드는 것과 같습니다. ...⁴⁰⁾

위의 내용을 보면 도가의 명계관에 이미 불교의 염라왕이 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 천제-염라왕-태산부군의 위계를 보이며, 앞서 설명한 조직화된 인간의 관료사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지옥은 현세의 관청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며, 당대(唐代)로 갈수록 ‘인간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⁴¹⁾ 이렇게 이계가 인간계 및 현세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계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다름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인의 현실주의적 경향과 현세주의적 경향 하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²⁾

2) 이계 존재와 인간의 관계 변화: 인간의 지위상승 및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

이계 존재의 인간화에서 보이는 다른 특징은 바로 이계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 변화이다. 신, 귀의 지위격하와 인간의 지위상승, 혹은 이계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태평광기』 고사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신이 인간의 규범에 맞추려고 하거나, 인간과 호형호제⁴³⁾ 하기도 한다. 인간과 신의 지위와 관계에 대해 「위안도(韋安道)」고사

40) 『태평광기』 297·4 「목인천(睦仁茜)」: “道者彼天帝總統六道, 是爲天曹. 閻羅王者, 如人間天子. 泰山府君, 如尙書令錄. 五道神如諸尙書. 若我輩國, 如大州郡. 每人間事, 道士上章請福, 如求神之恩. 大曹受之. 下閻羅王云: ‘以某月日, 得某申訴云. 宜盡理, 忽令枉濫.’ 閻羅敬受而奉行之, 如人奉詔也. …” (出『冥報錄』)

41) 여영시는 저승이 현실과 똑같이 묘사하는 것에 대해 ‘죽음을 연연한 것’의 표현이라 했다. 余英時, 『東漢生死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93-98쪽 참고.

42) 中村元지음, 김지건 역, 『중국인의 사유방법』, 서울: 까치, 1990, 121-136쪽 참고.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조부의 위안도는 …그는 진사과에 응시했으나 오래도록 급제하지 못했다. …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했을 때, 길 한가운데 의장을 갖춘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황제의 호위병 같았다. … 그 가운데 비산(飛傘)이 있었고 비산 아래에 구슬과 비취장식을 한 옷을 입고 커다란 말을 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마치 황후와도 같이 눈부시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어서 그 자태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 후토부인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 당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부모님이 계신데 그분들께 알리지 않고 저를 얻으신다면 이는 예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 시부모님께 가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혼례를 올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 위안도는 후토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말했다. “나는 미천한 집안 출신이고 당신은 고귀한 신이요. 지금 고맙게도 나와 부부의 연을 맺어 주었으나 나는 감히 당신의 상대가 될 수 없소. 게다가 칙천무후의 법이 엄하여 이 일로 인해 [집안에] 화가 미칠까 두려우니 당신이 우리 부모를 위해 그만 여기를 좀 떠나주었으면 좋겠소.” 위안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토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운 좋게도 군자와 짝이 되어 시부모님을 모셨으니, 아녀자의 도리로 시부모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은 당연하겠지요.”⁴⁴⁾

위의 고사에서 과거 낙방생이 후토부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보인다. 후토부인은 도교의 여신으로 사어(四御) 중의 하나이다. 사어란, 삼청(三清)을 보좌하는 네 명의 천제로, 그 중 후토부인은 천계를 주관하는 옥황상제와 더불어

43) 『태평광기』 302·2 「위정훈(衛庭訓)」, 305·4 「두삼(竇參)」(이상 신류), 362·21 「양중봉(梁仲朋)」(요괴류) 고사 참조.

44) 『태평광기』 299·1 「위안도(韋安道)」: 京兆韋安道, …舉進士, 久不第. …晨鼓初發, 見中衢有兵仗, 如帝者之衛. …中有飛傘, 傘(二傘字原空缺. 据明抄本補.) 下見衣珠翠之服, 乘大馬, 如后之(之原作主人二字. 据明抄本改.) 飾, 美麗光艷, 其容動人. …夫人因謂安道曰: “某爲子之妻, 子有父母, 不告而娶, 不可謂禮. 愿從子而歸, 廟見尊舅姑, 得成婦之禮, 幸也.” …眞卽命安道謝之曰: “某寒門, 新婦靈貴之神, 今幸與小子伉儷, 不敢稱敵; 又天后法嚴, 懼因是禍及, 幸新婦且歸, 爲舅姑之計.” 語未終, 新婦泣涕而言曰: “某幸得配偶君子, 奉事舅姑, 夫爲婦之道, 所宜奉舅姑之命, 今舅姑既有命, 敢不敬從.” (出『異聞錄』)

산천을 주재한다.⁴⁵⁾ 이러한 높은 신인 후토부인은 이 이야기에서 위안도와 자신의 성에서 혼인 후에 인간세상의 법도에 따라 남편의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혼례를 올리기를 바라는데, 이는 시덕과 시부모님에 대해 예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훗날 시부모가 아들이 신과 혼인하여 자신의 집안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 아들 위안도를 시켜 후토부인을 떠나게 하자,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와 함께 떠나게 된다. 후토부인은 그녀의 도성에서 사해(四海)안의 모든 산, 강, 바다의 신의 배알을 받고, 여러 나라의 왕 및 칙천무후(則天武后)의 배알도 받는다. 이러한 후토부인은 측천무후를 두려워해 자신을 떠나게 한 시부모의 말을 공손히 받아들인 것으로,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의 규범에 맞춰 다양하게 변화된다.

절대적인 권능이나 지위를 가진 신, 귀의 존재에서 점차 인간이 높은 지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모영(牟穎)」고사에서 주인공은 땅에 드러나 있는 해골 한 구를 보고 직접 물어주었는데, 귀신이 나타나 감사를 표하고 제사만 지내 준다면 항상 모영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고 관계를 이어나간다.⁴⁶⁾ 이렇듯 인간이 이계 존재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은 당대(唐代) 고사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에서 온 것으로, 귀신이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았던 시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

위진남북조 시대 죽어서도 자각이 있다는 '신불멸(神不滅)' 관념이 유포된 후 귀신이 자각이나 마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고사들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대(漢代)의 고사와 비교된다. 한대의 이야기에는 귀신이 나타나 도움을 청하면 들어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심지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위진남북조 및 당대의 고사에서는 보답을 하거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漢)나라 사람인 문영(文穎)은 꿈에 귀신이 나타나 무덤이 강물에 침수되

45) 마서전 지음, 윤천근 옮김, 『중국의 삼백신』, 서울: 민속원, 2013, 158-161쪽 참고.

46) 『태평광기』 352 · 1 「모영(牟穎) 고사」 참조.

어 다른 곳에 물어주기를 청한다. 문영은 꿈은 헛된 것이라며 개의치 않다가 귀신이 다시 꿈에 나와 도움을 청하자 그 일에 대해 알아보고 이장해 주고 떠난다. 그는 예전에는 헛된 일이라 생각했는데, 본인이 그런 일을 직접 겪고 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다.⁴⁷⁾

이러한 귀신에 대한 자각은 이계 존재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작일 뿐이며, 종교적인 영향아래 많은 더욱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불·도교의 발달로 기존의 두려움과 구복의 대상이었던 이계 존재는 영향력이 약화되어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한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존재가 퇴치 가능한 존재가 되면서 두려움이 해소되어 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태평광기』에는 불법을 신봉하여 불경을 읽거나, 승려나 도사가 부적으로 이계 존재를 퇴치하거나 사람을 보호하며, 심지어 승려를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는⁴⁸⁾ 등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밀교(密敎)가 발달하면서 총지술(總持術)이나 칙근술(勅勤術)⁴⁹⁾ 등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아래 이계 존재, 특히 악귀나 흉신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하찮은 존재로까지 지위가 변하게 되었다. 거기에 중국인의 인간중심, 현실주의적 경향⁵⁰⁾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5. 나오며

중국의 이계(異界) 존재들은 지괴의 전통과 함께 발전하여 고전소설에서부터 현대의 미디어나 콘텐츠 속에서 까지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

47) 『태평광기』 317·4 「문영(文穎) 고사 참조.

48) 『태평광기』 319·4 「호무회(胡茂廻), 362·19 「연봉상(燕鳳祥), 362·3 「승지원(僧智圓), 370·2 「요사마(요사마), 372·2 「채사(蔡四) 고사 등 참조.

49) 총지술(總持術)은 선을 지키고 악을 물리친다는 불교의 술법이며, 칙근술(勅勤術)은 밀종에서 생하는 주문을 외고 부적을 그리는 등의 술법을 말한다.

50) 中村元지음, 김지건 역, 앞의 책, 121-136쪽 참고.

한 이계 존재를 송초(宋初)까지의 작품이 수록된 『태평광기』 고사들을 통해 ‘인간화’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계란 이 세계[此界]와는 다른 세계로서, 명계(冥界), 즉 타계(他界)를 포함하며, 후대로 갈수록 복잡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데, 불교와 도교의 전통적인 저승관과 중국 도교적인 측면의 세계 또한 모두 포괄하여 고찰했다. 이계 존재들을 『태평광기』 대류인 신(神), 귀(鬼), 요괴(妖怪), 정괴(精怪), 영이(靈異)를 중심으로 그 인간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이계 존재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나 나거나 육신이 생기는 생물학적 존재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이들에게 사람의 음식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시를 짓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등의 문화를 향유하며, 지식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더욱 인간화된 양상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인간과 어울리며 동화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마음을 가진 ‘휴머니즘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인간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인간의 좋은 모습만이 반영된 것은 아니어서, 세속화된, 더 나아가 타락한 모습으로도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계 존재의 인간화는 이계의 인간화, 현세화의 특징을 나타내어 점차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모습 속에서 그려진다. 또한 인간의 이러한 영향 하에 이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는 이러한 ‘이계 존재의 인간화’ 현상을 견인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계 존재 전체에 대해 ‘인간화’라는 현상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면서 통시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현대 중국은 검열기준에 의해 요괴, 귀신, 외계인 등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존재에 대해 미디어에서 그 내용을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신화나 전설 등 전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에 중국의 게임에서 일부 요괴나 정령 등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의 이계 존재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현대문화콘텐츠산업에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參考文獻

- 葛兆光 著, 沈揆昊 옮김, 『道敎와 中國文化』, 서울: 동문선, 1993.
- 김동기 지음,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마이클 로이, 이성규 옮김, 『古代中國人의 生死觀』, 서울: 지식산업사, 1998.
- 박지현,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 : 『太平廣記』 鬼部에 나타나는 신앙의 서사와 탈신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박지현, 「중국 민간 신앙 속에서의 신 되기 - 『태평광기(太平廣記)』 신부(神部) 이야기에 나타나는 인물신 분석」, 중국학보, 2005.
- 배병균, 「『요재지이』 중의 정괴」 人文學誌 25, 2002.
- 서경호, 「고대 중국에서의 소설적 서사의 형성과정-저승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28집, 1998.
- 서경호, 「소설적 서사의 형성과정에 관한 검토 - 귀신과 저승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15집, 1998.
- 송진영, 「중국 고전소설 속에 묘사된 저승사자 명칭과 형상에 관한 고찰 -『태평광기(太平廣記)·귀부(鬼部)』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Vol.56, 2016.
- 안병국, 『鬼神說話研究』, 서울: 규장각, 1996.
- 양리 마스페로, 신하령·김태완 옮김, 『도교』, 서울: 까치, 1999.
- 窪德忠·西順藏 엮음, 조성을 옮김, 『中國宗教史』,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 연소영, 「『太平廣記』 佛敎類故事研究: 佛敎素材의 受容과 變容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4.
- 유강하, 「『太平廣記』精怪類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2004.
- 유강하, 「야차(夜叉)의 중국적 수용과 다기성(多歧性) 연구-『태평광기(太平廣記)』 「야차(夜叉)」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2022.
- 유강하, 「사물 기원의 귀(鬼), 도깨비와 정괴(精怪)의 비교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2023.
- 李昉 等 編, 김장환 외 옮김, 『太平廣記』1~21, 서울: 학고방, 2000~2005.
- 이화주, 「삶과 죽음의 경계 : 『太平廣記』 「再生」類 故事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6.
- 임계유 편저, 정택원 옮김, 『중국철학사』, 서울: 까치, 1990.

- 장미란, 「中國佛敎化과정에서 본 道家와의 關係연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 정진선, 「고대중국 古代中國 기물정괴서사 器物精怪敍事 의 발생과 그 의미 - 『太平廣記』 精怪部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012.
- 최복녀, 「魏晉南北朝 志怪의 鬼모티프 분석」,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00.
- 陳嘉麗, 「唐代佛道思想小説研究」, 文化大學中文系 碩士論文, 2000.
- 房突, 「從『太平廣記』看唐人夜叉觀」, 中國典籍與文化 61, 2007.
- 葛兆光, 『中國宗教與文學論集』,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8.
- 李劍國 著, 『唐前志怪小説史』,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84.
- 邵穎濤, 「冥界與唐代敍事文學研究」, 南開大學 中國國語言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10.
- 實吉達郎, 『中國妖怪人物事典』, 講談社, 1996.
- 王曉平, 『佛典·志怪物語』,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0.
- 王元臣, 「泰山信仰的源流淺說」, 『山東科技大學學報』, 第7卷 第4期, 2005.
- 吳志達, 『中國文言小説史』, 山東: 齊魯書局, 1994.
- 吳悅馨, 「『太平廣記』鬼類故事研究」, 成功大學歷史學系碩博士班, 2010.
- 徐華龍, 『中國鬼文化大辭典』, 廣西民族出版社, 1994.
- 徐華龍 著, 『中國鬼文化』, 上海: 上海藝文出版社, 1991.
- 余英時, 『東漢生死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張 松 著, 『中國鬼信仰』,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 鄭惠環, 「唐代志怪小説研究」, 臺灣大碩士學位論文,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humanization of beings in the different world in Chinese ancient novels

Yeon, So Yung

This study focuses on the beings of the different world in Chinese ancient novels that was examined with an emphasis on the aspect of ‘humanization’ through the *Tai-Ping Guang-Ji*.

‘The different world’ covered in this paper is a different world from ‘This world[此界]’, including Mingjie(冥界) or Tajie(他界), and shows a complex and convergent character toward later generations, and both the traditional Hell of Buddhism and Taoism and the world of Chinese Taoism are also considered comprehensively. The characteristics of humanization were examined by focusing on the convection of the *Tai-Ping Guang-Ji*, God, Ghost, Yecha(夜叉), Yaoguai(妖怪), and Jingguai(精怪). In particular, the beings of the different world was examined in terms of substantive, socio-cultural, humanistic, and secular. By the realization of the different world and the 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nd the beings of the different world, the beings of the different world show humanized patterns.

Key words : Chinese, Chinese ancient novel, the different world, god, ghost, grim reaper, Yecha(夜叉), Yaoguai(妖怪), Jingguai(精怪), apparition, humanization

투 고 일 : 2023. 10. 10. / 심 사 일 : 2023. 10. 15. ~ 2023. 11. 15. / 게재확정일 : 2023. 11. 20.

